

군산세관 옛 건물 국가지정문화재 추진

1908년 건립 ... 일제 조선총독부 관세행정 등 확인 역사 현장 서울역사·한국은행 본점 등 국내 현존 3대 근대역사 건축물

일제강점기의 아픈 수탈 역사를 지닌 군산세관의 옛 건물에 대한 사적(史蹟) 승격이 추진된다.

24일 군산시에 따르면 문화재청(청장 김중진)은 지난 23일자로 전북도 기념물 제87호인 '옛 군산세관 본관'을 국가지정 문화재(사적)로 지정 예고했다.

도 원도심 소재 ▲옛 남조선전기주식회사 ▲빈해원 ▲옛 조선운송주식회사 사택 ▲옛 법원관사도 문화재로 등록 예고됐다.

특히 옛 군산세관은 1908년 건립된 건물로 대한제국 시절 세워진 서구식 건축물의 구조와 특성을 이해하는데 있어 학술적·건축적 가치가 크고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의 관세행정 및 경제 수탈사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역사적 현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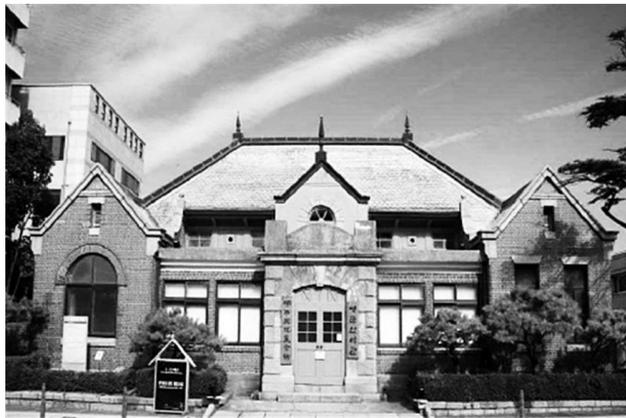
이 건물은 독일인이 설계하고 벨기에 건축자재를 수입해 건축된 중세 유럽 건축풍의 서울역사와 한국은행 본점 등과 더불어 국내 현존하는 3대 근대역사 건축물 중의 하나다.

서양식 단층(228.10㎡)으로 지난 1994년 8월10일 전북도 지정문화재 기념물 제87호로 지정됐다.

현재 호남 관세전시관으로 활용되고 있는 이 청사에는 일제 강점기 사진과 세관 사료(史料) 등을 전시해 개방하고 있다.

두양수 군산시 문화예술과장은 "역사·건축적 가치가 높은 옛 군산세관본관이 국가지정문화재인 '사적(史蹟)'으로 승격되면 국고 지원을 받아 경관을 정비하고 옛 조선은행 등 원도심 내 문화재를 연결해 문화관광자원 및 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화재청은 30일간의 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 지정과 문화재 등록을 결정할 방침이다.



국가지정문화재(사적)로 지정 예고된 옛 군산세관 건물. (군산시 제공)

한편 문화재청은 30일간의 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 지정과 문화재 등록을 결정할 방침이다. /군산=박규석 기자 nogusu@kwangju.co.kr

군산 소형양배추 일본 수출 시작

군산에서 생산된 소형양배추는 일본 소비자 입맛을 사로잡으면서 생산물량 전량이 수출될 예정이다.

24일 군산시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창호)에 따르면 지난 22일 양배추 10t이 컨테이너 차량에 실려 첫 수출길에 오른 데 이어 매주 금요일 같은 물량이 수출된다.

일본에 수출되는 양배추는 봄과 가을 두 차례 파종되며 생산된 양배추는 모두 일본으로 수출될 예정이다.

양배추 평균 무게가 2kg 내외인 데 반해 수출 양배추는 1kg 내외의 소형으로

식감이 부드럽고 아삭하면서 당도가 높은 생식용으로 일본 시식회를 통해 상품성을 인정받았다.

이날 출발한 양배추는 군산항을 통해 25일 일본 도쿄항에 도착해 본격적으로 일본 식탁에 오를 전망이다.

군산시 농업기술센터는 양배추의 일본 수출을 위해 지난해부터 유통업체와 생산 농업인 등과 수차례 협의를 진행해 지난 2월 수출 계약을 체결하고 3월 말 본격적인 재배에 들어갔다.

/군산=박규석 기자 nogusu@



24일 첫 선을 보인 '외국인 전용 남도한바퀴' 투어에 동행한 참가자들이 출발에 앞서 무안국제공항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남도한바퀴' 외국인 전용 여행상품 출시

전남도, 매주 일·수요일 보성·여수 등 당일 코스

전남도가 24일 외국인 전용 남도한바퀴 특별상품을 내놨다.

최근 무안국제공항 국제선 정기편 취항 확대에 발맞춰 외국인 방문객들이 쉽고 편하게 남도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무안국제공항 국제선 도착 시간과 연계해 매주 일요일과 수요일 주 2회 당일 코스로 상품을 꾸렸다.

일요일 상품은 '초록빛 마을 충전 보성·여수 여행'이고, 수요일 상품은 '아름다운 향구도시 목포여행'이다.

24일 첫 선을 보인 보성·여수여행은 광주·전남에 거주하는 외국인인 유학생 등 20여명이 참가했다. 이들은 푸르른 물결이 아름답게 펼쳐진 보성 녹차밭에서 지친 마음을 치유하고, 로맨틱한 불빛이 넘실대는 여수에서 해상케이블카와 간장계장, 장어탕 등 남도음식과 감미로운 버스킹 공연에 흠뻑 빠져들었다.

오는 27일 수요일에 떠나는 '아름다운 향구도시 목포여행'은 근대역사와 문화를 고스란히 간직한 목포근대역사관, 성육기념관, 연회네슈퍼 등 목포역 오거리 투어를 진행한다. 특히 목포의 별미 꽃게

살비빔밥과 바지락회 등을 맛볼 수 있고, 화려한 빛깔로 수놓아진 춤추는 바다분수 공연도 즐길 수 있다.

'외국인 전용 남도한바퀴' 이용 요금은 1인당 9900원이며, 광주 유스퀘어, 송정역과 무안국제공항에서 탑승할 수 있다. 노선과 시간은 무안공항 국제선 정기편 도착 시간과 연계해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이용객에게는 목포 상그리아비치리조트 호텔, 신안비치호텔, 여수 베네치아호텔, 마미유호텔에서 10~30%의 할인혜택을 제공한다.

또 홍보 마케팅을 위해 외국인 유학생 등을 대상으로 '외국인 전용 남도한바퀴'를 미리 체험하는 맛보기 행사를 2주간 진행한다.

방옥길 전남도 관광문화체육과장은 "남도한바퀴의 글로벌화 첫 단추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남녀노소, 내·외국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글로벌 남도한바퀴'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정읍시 산사태 취약 6곳 추가 지정

산내면·칠보면 등

정읍시가 산사태 취약지역 6개소를 추가로 지정, 관리에 나섰다.

정읍시 최근 산사태와 사방 사업 전문가들로 구성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위원회를 열고 지역 6곳을 취약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신규로 지정된 곳은 산내면과 산외면, 칠보면 등 산사태 위험지로 조사된 지역으로 많은 비가 내릴 경우 산 계곡부의 토석과 나무 등이 밀려와 주변민가와 농작물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곳이다.

시는 이번 신규로 지정된 지역 등 산사

태 취약지역으로 총 154개소에 대해 특별 관리하고 있다.

시는 또 지정된 산사태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비상연락망과 대피소 등 대피 체계를 구축해 특별관리하는 것은 물론 위험등급에 따라 사방담과 계류보전 사업 등 피해 예방을 위한 사방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정읍시 관계자는 "산사태 취약 지역에 산사태 현장 예방단을 투입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사방 사업을 추진하는 등 집중 호우 등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22일 공동체지원센터 교육장에서 마을활동 전문가 양성과정 개강식 참가자들이 강의를 듣고 있다. (남원시 제공)

남원시 마을활동 전문가 양성과정 실시

남원시가 마을공동체를 이룰 전문 리더 양성을 위해 마을활동 전문가 양성과정을 열어 주목을 끌고 있다.

24일 남원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5월 꿈꾸는 마을학교 운영에 이어 22일부터 공동체지원센터 교육장에서 마을활동 전문가 양성과정을 실시하고 있다.

첫날 개강식에는 교육생 22명과 센터직원 등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마을별로 진행되고 있는 공동체 활동에 대한 역할 중대와 멘토링 기법에 대한 강의와 마음열기 과정이 열렸다.

이번 전문가 과정은 이론강의와 실습교육을 조화롭게 구성하여, 교육기간중 하반기에 실시하는 '우리마을 공동체 창안대회

사업' 팀에 직접 실습으로 참여해 사업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과 멘토링 그리고 코디네이팅을 해보게 된다.

교육수료 후에는 주도적으로 마을사업을 추진 할 수 있는 전문 활동가가 돼 앞으로 마을에서 추진하게 될 공모사업 및 각종 마을사업 등에서 리더 역할을 하게 된다.

시는 이들이 주체가 돼 마을공동체 사업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자체 역할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규원 남원시 공동체지원 센터장은 "수준 높은 마을활동 전문가를 양성해 사람과 마을을 잇는 탄탄한 활동가의 기반을 만들어 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

익산시 R&D기관 협의체 회의

익산시는 지난 22일 산업부문 간 융·복합을 통해 새로운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한 R&D기관 협의체 회의를 열었다.

이날 익산 지역 R&D기관 연구자와 주요 관계자 등 20여명은 익산시청 회의실에서 현재 중점 추진 중인 사업과 향후 진행 예정인 관심사업에 대한 제안 설명과 R&D기관 협의체 구성에 관한 기관별 의견을 청취했다.

R&D기관 협의체는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지역에 있는 연구기관과 대학이 보유한 산업 잠재력을 파악하고 네트워크 구성 같은 협력관계 유지가 목적이다.

참석자들은 다른 기관과 대학이 진행하는 주요 사업과 기술, 연구 장비 등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익산에는 Eco융합첨삭연구원, 한국조명연구원, 전북분원, 스마트융합기술센터(호남권 3D프린팅제조혁신센터 등), 전북디자인센터, 익산패션주얼리공동연구개발센터, 인수공동전염병연구소, LED농생명융합기술연구소, 익산창업보육센터가 있고 원광대 등 4개 대학이 높은 연구개발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익산=유정영 기자 yjy@kwangju.co.kr

상가(빌딩) 매매 - 진월동 -

- 대 지 1,132㎡
- 건물 4,739㎡(공실없음)
- 매 가 78억
- 수익률 6.8%

☎ 010-2602-7266

BN 테이크아웃(포장판매)의 혁신

전기/가스가 필요없는 참숯 딱갈비/통닭 비비큐 훈연기
현제영업중인 음식점/점포 장비구입, 메뉴 추가로 대박창출!!

제품크기
• BN 1500 : 1440(L) x 650(W) x 1250(H)
• BN 1000 : 940(L) x 650(W) x 1250(H)

본사/영업본부 : Tel. 02-2029-8188/9 Fax. 02-2029-6404
광주 :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신당9번로 45(창의동)
호남영업본부 : Tel. 062-953-2995 Fax. 062-953-2998

"덕남동" 임야

- 광주광역시 남구 덕남동 산72번지
- 임야 22600평중 나머지 950평 공유지분, 원하는 평수만큼 매매가능 (200평 이상)
- 도시지역, 자연녹지
- 인접토지 15~20만원에 매매 됨 (산64-21번지, 맹지)
- 매매 - 평당 20만원 (일사불 완불시 조정가능)

문의. 010-6834-7400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도·교환·개발 등의 물건을 구입합니다!

팬션·전원주택지

- 보성 문덕면 죽산리 대원사입구 택지조성된 곳 660㎡ 1억
- 장성 북이면 장성면 인근 전 2136㎡ 주택·창고적합 4700만원
- 신안군 압해도 북룡리 1810㎡ 저수지월 조용한생활 적합 4300만원
- 곡성 삼기면 대지 681㎡ 광주서 30분내 5300만원

주택·원룸·아파트

- 월산동 소방도점 1층 임대 방3 주차장 4천에 45만원
- 화순 동면 땅 706㎡ 2중전원주택 상가주택·아파트와 교환원 2억6천
- 월산동 소방도 땅 165㎡ 주택 179㎡ 3세대 생활용 2억3천

투자·매도·교환

- 쌍촌동 소방도 땅 118㎡ 2중 상가주택적합 1억3천
- 충남 보령시 원산도 664㎡ 농협 9천 취득 1억4천 매도 1300
- 영광 홍농읍 주거지역 2136㎡ 공시가 6700 매도 8700
- 곡성 입면 매실밭 등 11828㎡ 귀농생활에 최적 2억4천
- 화순 이양면 매정리 산 32923㎡ 국당 적합 7500만원
- 북구 망월동 주거지역 1650㎡ 전원생활 등 적합 4억3천
- 무인텔부지 화순 도곡면 2008㎡ 위치좋은 6억천
- 수목장(장례) 허가지 남구 덕남동 임 6645㎡ 경관좋은 2억
- 수목원 허가지 남구 덕남동 임 8232㎡ 건평 1148㎡ 허가 10억
- 함평역 건너 대로점 2중주거지 3192㎡ 다양한용도 2억6천
- 태양광적합 영광 군남 반안리 114843㎡ 매도 8억
- 전원주택지 무안 운남면 내리 5000㎡ 법인이전 1억6500

상가건물

- 동구 충장로5가점 수기동 대지 168㎡ 2중건물 투자에 좋음 3억8천
- 북구 용봉동 고시텔 대지 357㎡ 건평 45실 830㎡ 은행5억 교환가능 9억
- 카센터적합지 농성동 대지 182㎡ 3층건물 297㎡ 현재운영중임 4억
- 농성역 부근 대지 973㎡ 건물 457평 공시지가 18억 매도 39억
- 나주시 땅 4045㎡ 건평 5893㎡ 증축해서 요양병원적합 69억
- 북동 5층건물 대지 562㎡ 건평 1637㎡ 임대생활적합 14억
- 충장로5가 요지 대지 261㎡ 5층건물 1128㎡ 은행 15억 매도 24억

☎ 문의 222-4994, 010-2632-5659
서구한전, 농성초교옆문앞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 부수

독자와 함께 걸은 길 66년

광주일보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예향

광고문의 (062)227-9600
신문구독 (062)220-0551
예향구독 (062)220-0550